

〈번역〉

##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유라시아론을 조망하다\*

이 성 시 저  
안 현 선 \*\* 역

편집부로부터 동아시아사를 둘러싼 연구 상황을 묻는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의뢰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일이다. 그런데 수중에 있는 연구 성과를 훑어보면 전근대, 특히 고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 연구 동향을 논한 후루하타 도오루[古畑徹] 씨의 최근 연구 성과 (『東(部)ユーラシア史という考え方 -近年の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史研究の新動向』, 『高句麗・渤海史の射程』, 汲古書院, 2022년)에서 이미 ‘유라시아론’<sup>1)</sup> 과의 관계로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세계사론의 연구 동향을 자세히

---

\* 이 글은 李成市, 「東アジア世界論からユーラシア論を望見する」(『新しい歴史学のために』 303號, 2023)를 번역한 것이다.

\*\* 奈良國立博物館 연구원

1) ‘동아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개념으로서 ‘동부유라시아’, ‘동유라시아’, ‘유라시아 동부’, ‘동유라시아 세계’ 등과 ‘유라시아’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워 지역 개념으로서 역사학에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를 본고에서는 편의적으로 ‘유라시아론’이라 칭한다.

언급하고 있다. 나에게서는 후루하타 씨 이상의 것을 논할 만한 연구 재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집부의 의뢰에 부응할 수 있을까 고심했다.

나아가 편집부에서는 후쿠시마 료타[福嶋亮太] 씨가 이번 특집의 집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이에 후쿠시마 씨의 저서(『ハロー、ユーラシア—21世紀「中華」圏の政治思想』, 講談社, 2021년)를 읽어보니 지금까지 일본 역사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유라시아론’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관점이 여기저기 담겨 있고, 동시에 동아시아론에 관련된 논의 전개를 보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더 한층 써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후쿠시마 씨의 언급처럼 유라시아 대륙 규모에서 현재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부제에 있는 ‘중화’권의 정치사상 및 그 구체적인 정치 주체인 중국의 유라시아에서의 동향을 시야에 넣을 수 있어야 역사를 파악하는 틀로서 ‘유라시아’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후쿠시마 씨의 ‘중화’권이란 종래의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언급되어 온 여러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유라시아 전체와의 관계에서 ‘중화’권의 현실을 대상화 하지 않는 한 역사 대상으로서의 유라시아라고 하는 지역 설정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에 이르렀다. 결국은 이러한 유라시아의 현실을 시야에 넣지 않는 한 역사를 포괄하는 지역적인 구분으로 유라시아론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서는 그러한 논의를 할 만한 구체적인 지식과 시야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논할 자격이 없게 되어 곤혹스러웠다.

원래의 역사 연구는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에 의해 뒷받침된 현대사 연구가 모든 역사를 의미 있는 것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의 다양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그 ‘여러 원인’을 가능한 한 넓은 세계의 연관성 속에서 찾고, 가능한 한 먼 시대까지 거슬

러 올라가서 그 원류를 찾아야 한다<sup>2)</sup>고 하는 욕구를 내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역사학계의 ‘유라시아론’과 후쿠시마씨의 소론 사이에는 두려울 정도로 논의의 질적인 간극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씨의 논저를 통해 내가 받은 충격을 요약하면 2010년대 이후의 ‘유라시아론’에는 현실의 유라시아를 마주 보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점이다.

논의를 단순화해서 말하면 2010년대에 제창된 이래 한순간에 많은 지지를 얻은 ‘유라시아론’은 역사 연구자가 각자 필드로 삼은 시대의 역사를 대상으로 논할 때 그 전개를 파악하는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폭넓게 설정해야 보다 유효한 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는 동아시아보다 넓은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라시아가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왜 유라시아(유로+아시아)인가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는 것이다.

편의적으로 사례를 들면 역사학 연구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제창된 우에다 마코토[上田信] 씨의 ‘동유라시아’는 14~19세기 명청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해, 발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5개 바다 및 이에 인접하는 육지와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공간에 더해 시베리아 동부를 포함한 북동아시아, 티베트고원과 몽골고원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것이 우에다씨가 해당 시기를 논할 때 설정한 ‘동유라시아’에 상당한다.<sup>3)</sup>

또한 동양사, 특히 중앙유라시아사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사를 유라시아사와 연결하는 관점에서 넓게 파악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2) 小島潔, 「上原専祿における現代史と世界史」, 『思想の科学研究年報』 3, 2021, 65쪽.

3) 上田信, 『海と帝國明清時代』(中國の歴史, 第9卷), 講談社, 2005.

지역 개념으로서 후루마츠 타카시[古松崇志] 씨가 ‘동방유라시아’를 제창하였다. 그 지역은 파미르고원 이동 지역, 즉 중국 본토, 한반도, 만주, 동시베리아, 몽골, 하서회랑(河西廻廊), 동투르크스탄, 티베트, 雲南, 인도차이나반도 등의 범위를 포함한다고 한다.<sup>4)</sup>

한편, 2010년 이후 일본 고대사의 입장에서는 히로세 노리오[廣瀨憲雄]씨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세계론의 비판으로써 ‘동부유라시아’가 제창되었는데,<sup>5)</sup> 야마우치 신지[山内晉次]씨는 종래의 ‘동아시아’는 일본·중국·한국 등 3국의 역사관에 묶여 있으며 오히려 그들 지역에서 확장되는 해역세계 및 몽골고원, 티베트고원 등을 포함한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넓은 영역의 역사세계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sup>6)</sup>

후루하타 씨가 적확하게 정리한 것처럼 유라시아론에는 동양사, 중앙아시아사 연구자에 의한 것과 한편으로 일본 고대사 연구자에 의한 유라시아론이 있다. 특히 일본 고대사 연구자의 유라시아론에서 공통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영향력을 지속해 온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틀의 제창이다.<sup>7)</sup>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비판은 201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졌다. 또한 ‘동부유라시아론’이라는 새로운 틀이 고조되면서 ‘동아시아 세계론’은 각 방면으로부터 비판 받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동아시아 세계

---

4) 古松崇志, 「10~13世紀多國竝立時代のユーラシア東方における國際關係」, 『中國史學』 21, 2011, 121쪽.

5) 廣瀨憲雄, 「倭國 日本史と東部ユーラシア 6~13世紀における政治的連關再考」, 『歴史學研究』 872, 2010; 廣瀨憲雄, 「東アジア世界の現状と展望」, 『歴史評論』 752, 2012.

6) 山内晉次, 「東アジア史再考 -日本古代史研究の立場から」, 『歴史評論』 733, 2011.

7) 古畑徹, 「東(部)ユーラシア史という考え方 -近年の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史研究の新動向」, 古畑徹 編, 『高句麗·渤海史の射程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の新動向』, 汲古書院, 2022.

론에 대한 비판이 어디까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과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론은 ‘동부 유라시아론’에 의해 넘을 수 있는 틀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식에서 동아시아 세계론의 射程을 검증한 적이 있다.<sup>8)</sup>

공교롭게도 원고를 집필할 당시에는 볼 수 없었으나 탈고한 후에 오카모토 타카시[岡本隆司] 씨가 아래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sup>9)</sup> 당시의 학계 분위기를 잘 전하고 있으므로 긴 문장이지만 인용한다.

‘역사학의 초점’을 특집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가 일본의 역사 학계에서 ‘초점’이었던 적이 있는가. (중략)

외부로부터의 접근만 아니다. 동아시아 연구 내부 또한 그렇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당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세계라고 하는 독자적 세계질서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근래에는 거의 비슷한 시기와 지역을 ‘동부유라시아’로 바꿔 말하고 있다. 10세기 이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조금 더 시대가 흐른 이른바 ‘근세’ 이후에도 ‘유라시아’는 유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유라시아 세계’, ‘유라시아 동방’ 등등. 아무래도 ‘동아시아’ 그 자체가 死語가 되어 소멸하는 정세이다.

꽤 난폭한 말투지만 나는 20여 년 전에도 이와 같은 도발적인 발언을 어떤 학회의 심포지엄에서 들은 적이 있다. 어떤 ‘학과[學脈]’에서는 이러한 언사가 선호되어 은어(符牒)와 같이 이야기되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sup>10)</sup> 그런데 학술 연구는 예술처럼 유행되거나 집단의 특정 세계에서 통

8) 李成市, 『鬭爭の場としての古代史 -東アジア史のゆくえ』, 岩波書店, 2018 (原載「東アジア世界論と日本史」, 『岩波講座日本歴史』 22, 岩波書店, 2016).

9) 岡本隆司, 「東アジアとユーラシア -「近世」「近代」の研究史をめぐって」, 『歴史評論』 799, 2016, 37~38쪽.

하는 방식[流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분석 시각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학문상 이론적인 논증 전개를 거친 후에야 전혀 새로운 차원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논증 방식은 역사 연구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동향과는 관계없는, 이른바 학계라고 하는 좁은 커뮤니티의 내부적인 성취로 왜소화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체 역사학은 의존할 만한 현대 인식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역사 연구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자신의 삶과 관계된 문제의식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고 하는 생각에 나는 깊이 찬동한다.<sup>11)</sup>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논의는 연구자나 그 시대에 있어 삶에 관련된 필연적인 과제 설정과는 무관한 “유행과 우연, 모방과 자의가 연구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sup>12)</sup> 고 하는 것이 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거기에는 전형적인 일본에서의 역사학 연구의 존재방식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동아시아 세계론과 동부유라시아론이라는 지역설정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줄고에서 지적한 적 있으나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씨의 ‘n 지역론’을 예시로 인용할 것도 없이 역사의 지역 설정은 가변적이며 추구하는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지역 레벨에 대응하여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어떠한 ‘n 지역론<sup>13)</sup>’을 설정할 것인가는 역사 연구의 주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역사에서 어떤 관점을 절실히 물을 것인가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유행’의 문제여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 세계론’을 향한 비판에 대해

10) 2001년에 중국사회문화학회에서 개최된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자리에서 그 ‘학파’에 속한 연구자는 “동아시아라는 틀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발언하였다.

11) 小嶋潔의 前掲 논문 참조.

12) 上原專祿, 『歴史學の研究課題』, 『歴史學序說』, 大明堂, 1958. 小嶋潔 前掲 論文, 62쪽.

13) 板垣雄三, 『n 地域論』, 『歴史における民族と民主主義』(『歴史學研究』 별책 특집), 青木書店, 1973.

서는 그 지역 설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읽지 않고 문제 설정이 행해진 역사적 상황을 무시한 비판이거나, 서정적인 비판이거나, 나아가 학계의 유행으로 비판하는 등 전혀 학술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왜 문제시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2010년대 이후에 일본 역사 학계에 의한 동아시아사 연구 동향에 관련하여 ‘동(부)유라시아론’에 대한 문제점은 후쿠하타 씨의 논고에 양보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씨의 유라시아론에 있어서 기존 일본의 역사학계(일본고대사, 동양사)에 없는 것으로서 이번 기회에 배울 수 있는 점은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씨의 ‘동아시아 세계론’의 문제 의식과 공통되는 현대적인 과제와 마주하는 방법과 거기에서 역사로 소급하고자 하는 입론 방식이다.

지금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으나 후쿠시마 씨가 지적하는 것처럼 유라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시야를 두면 2010년 이후 유라시아에서 괄목할만한 동향은 단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하는 서방으로의 확대 전략일 것이다. 시기를 동일하게 두고 냉전시대에는 인식하지 않았던 ‘유라시아’를 새삼 일깨우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유라시아 서방의 유럽 나라들과의 연동이 지구 규모로 무시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에서 반러시아적인 정부가 수립된 후 2015년에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을 결성한 러시아는 유라시아 帝國으로의 지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유라시아(유로+아시아)의 동서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두 개의 이질적인 정치 환경이 병립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 양국이 근년에 정치적·경제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각각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sup>14)</sup>

14) 유라시아 규모의 역사적인 대변동에 대해서는 201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한 북극해

이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NATO는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극동 지역의 일본과 한국에 움직임의 강화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라시아’ 지역은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현실적인 정치 과제로서 긴장감을 안은 대상이 되어 있다. 확실히 유라시아가 일체가 되어 중요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후쿠시마 씨가 지적한 것처럼 “유라시아라는 용어는 2010년대에 정치적으로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sup>15)</sup>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라시아의 동향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씨가 지적하는 것처럼 중화권(동아시아)과 관련하여 정권 이데올로그(趙汀陽)의 상세한 정치사상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위구르와 티베트, 홍콩을 향한 정치적 억압, 나아가 남중국해에서 강경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하여 중국은 주권이 끼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天朝(黨=국가)를 위협하는 존재에는 양보 없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이다.<sup>16)</sup>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확대 노선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씨는 19세

---

항로를 경시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일찍이 짧은 여름 기간에만 사용되던 북극해 항로는 海氷이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되고 있다. 연간 사용할 수 있다면 세계 물류망은 지구 규모의 격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군사전략상의 문제도 포함하여 미중러 삼국 사이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 나아가 북으로부터의 일대일로로서 블라디보스톡의 전략적 위치가 주목되면서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곳은 후쿠시마 씨가 주목하는 중화권에 의한 ‘과도한 근대화(식민지화)’와 깊이 관련되는 ‘변경지역’에 위치한다.

15) 후쿠시마 료타의 전계서, 71면.

16) 후쿠시마 씨는 “중국이 유라시아 帝國에 가까워지면서 그 사상에 대응하여 천하주의와 천초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130쪽)고 지적하는 한편, Rama Mitta씨의 “오늘날의 중국에 의한 일대일로 구상은 이 지역을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서양(예컨대 미국)의 주도권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230쪽)라고 하는 지적을 인용하였다. 중국의 2000년에 걸친 책봉(천조)체제와 그 질서 붕괴 후에 미국에 의한 이 지역의 개입을 문제시 한 것이 ‘동아시아 세계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기 청조 말기부터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안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이것이야말로 중국 근대에 있어서 식민지주의의 시작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나아가 일본, 한반도, 베트남, 대만, 홍콩, 新疆, 티베트라고 하는 중화권 변경 지역의 과도한 근대화(식민지화)와 아울러 이 지역의 각 문제를 다시 역사를 거슬러 환기시키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중화권(동아시아)의 역사와 현실을 문제 삼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措定할 수 있다면 유라시아론은 좀 더 풍부하게 내실을 분명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17) 예를 들어 후쿠시마 료타 씨의 전계서(233쪽)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동방의 대만, 홍콩부터 서방의 新疆, 티베트, 내몽골까지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거부하는 저항 운동은 몇 번이고 일어났다. 이 민족 충돌의 원인은 ‘식민 대국’이었던 청에 의한 중국 판도의 再定義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오늘날의 일대일로 구상도 역사적으로 보면 청대에 시작된 식민지화(대륙 식민) 프로그램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기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식민 건설’ 시대에 사는 관측자로서 과거의 유라시아 역사를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